

청정한 마음 묵향에 담으니 여기가 꽃자리

안길상 화백 개인전 하와이 무량사에서... 4월 18일~5월 20일



안길상 화백

내리 팔만 빛을 낳았던 어머니는 다섯째는 아들 낳기를 간절히 바라며 경북경산 성암사 산꼭대기까지 공양물을 머리에 이고 올라가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다섯째는 딸이었다. 낙심한 어머니는 갓난아이와 함께 죽겠다며 방에 불을 때지 말라고 했다. 출타했던 아버지가 돌아와서는 딸도 귀하다며 어머니를 설득시켰고 다섯째 딸은 무럭무럭 자라 스무살의 여인이 되었다.

어느날 친구들과 함께 들린 영천 은혜사에 반해 버스를 세 번 갈아타는 수고로움을 감수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절에 다녔고 그때 만났던 70대의 선승 지선 스님 옆에서 먹을 같이하며 어깨 너머로 글씨를 익혔다. 스님은 남동생 보기를 발원하며 부모님이 지어주었던 태남이란 이름은 소임을 다했으니 길상(吉祥)으로 살라 했다. 그후로 35년이 지난 지금, 그는 불법 만난 인연에 감사하고 일체중생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발원을 담아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린다.

안길상(56) 화백의 전시 '부처님, 묵향으로 만나네'가 4월 18일~5월 20일 미국 하와이 무량사에서 열린다. 전시 수익금 전액

을 무량사 요양원 '팔로로 코리언 케어홈' 건립을 위해 기부하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부처님 금강경' '여기가 꽃자리' '무(無)' 등 70여 작품을 선보인다. "하와이 무량사 도원 스님과는 지난해 불교박람회에서 인연이 났어요. 작은 부스를 마련해 전시를 했는데 스님께서 제 작품을 보고 전시를 하자고 제안하셨죠. 요양원 설립을 위해 여는 전시라 하니 저도 적극 동참하고 싶었고 수익금 전액 기부를 결정했어요. 제 작품을 감상하고 돌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작품 속에 담았습니다."

화두참선, 3천배, 금강경 사경 등 다년간의 수행으로 다져진 불심이 작품 속으로 녹아나니, 그의 작품은 고요한듯하면서도 동적이고, 심오한듯 하면서도 자연스럽고 여려다.

특히, 두폭 가리개 형태로 완성한 '부처님 금강경'은 금강경을 사경하듯 예서체로 쓰고 그 위에 좌선하는 부처님을 재미있게 터치하듯 그려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씨를 썼어요. 한 자라도 틀리면 다시 작성해야 하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한 달 넘게 작업해 작품을 완성했어요. 여기에 무위법을 통해 세상이 정화 되고 행복하고 좋은 기운이 충만하도록 하는 의미를 담아 부처님의 참신 모습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무(無)' 보라색 바탕에 '무' 자를 쓰고 사경한 반야심경 종이를 찢어 부처 완성해

냈다. 여기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한다고 저 하늘의 구름과 바람이 내게 일러준다. 비로소 몸과 마음이 자유롭다'는 글귀가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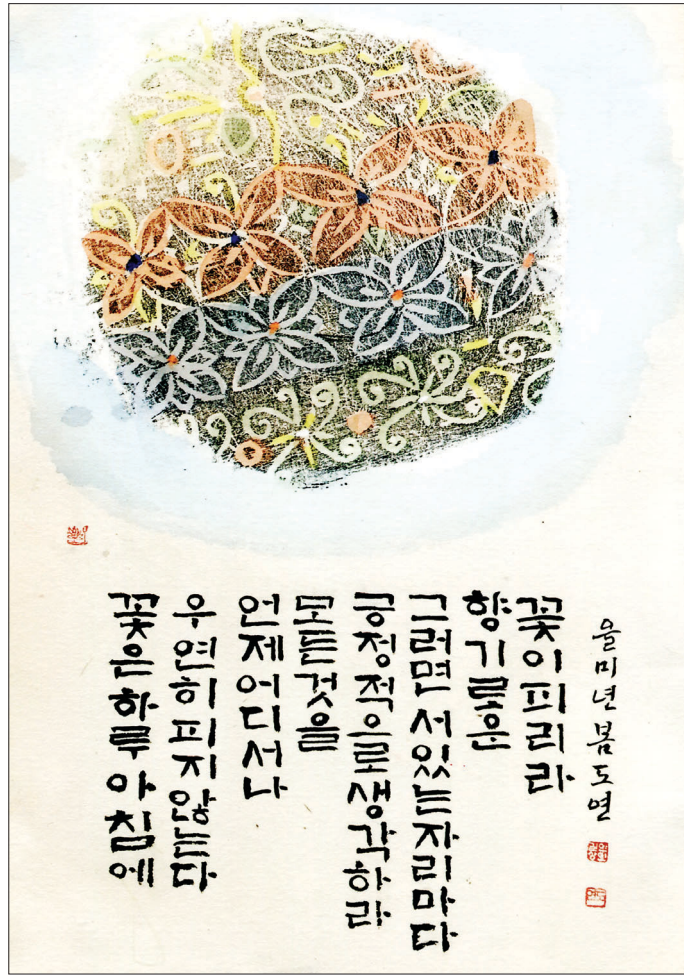
"반야심경의 핵심인 공사상을 담았어요. 수없는 '무'를 새기며 상을 내지 말되, '무'는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라는 뜻을 담았죠."

작가는 아무리 불법을 많이 공부해도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행복하고 그 충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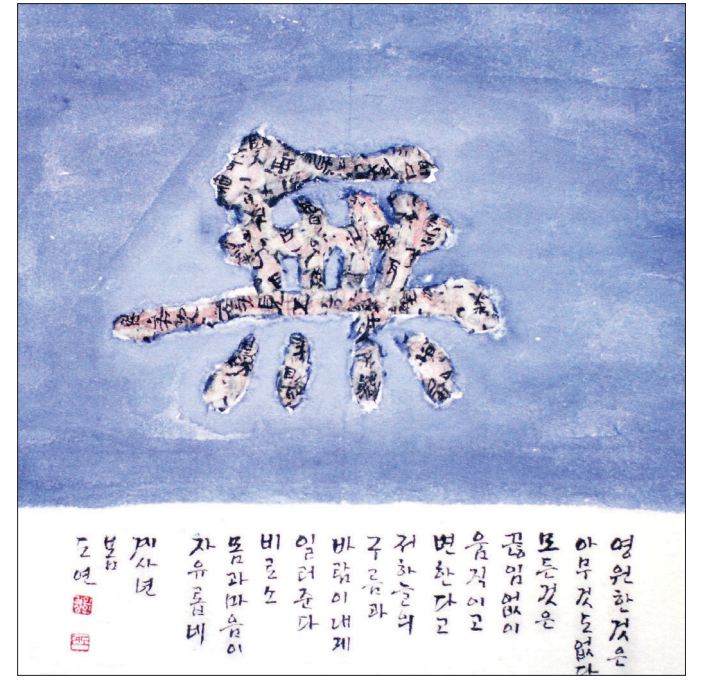
오래 수행 여정 작품에 투영해 '부처님 금강경' 등 70여 작품 전시 수익금 전액 요양원 설립에 기부

행복을 나누어주는 의미를 '꽃자리' 시리트로 남기고 있다. '여기가 꽃자리' 역시 이런 의미를 담았다. "지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너무 잘 대접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꽃자리라는 의미를 담아 작품을 완성했죠. 집주인이 당혹스러워 할만큼 좋아해주었어요."

이밖에도 임제선사의 어록을 채색판화에 결집한 작품, 부처님 탄생의 기쁨과 성철 스님 부처님오신날 법어를 함께 담은



'천상천하유아독존' 등 불경의 어록을 서예로 옮기고 그림을 결집한 작품은 대중들의 가슴에 불심의 향기를 전해줄 것이다. "성격이 빈틈이 많고 어설피며, 이런 제가 보는 깨달음은 무겁거나 딱딱하지 않아요.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유연하죠. 머리



안길상(56) 화백의 전시 '부처님, 묵향으로 만나네'가 4월 18일~5월 20일 미국 하와이 무량사에서 열린다. 작가는 전시 수익금 전액을 무량사 요양원 '팔로로 코리언 케어홈' 건립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그림 왼쪽은 임제선사 어록에서 문구를 가져오고 판화의 문양에 채색한 작품. 그림 위는 공사상을 담은 '무'

로 아는 불법은 소용이 없어요. 제가 알고 느낀 것을 그림과 글씨로 남겨 세상과 나누며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처처가 수행처예요. 사람들과 만나고 얘기하고 읽고 느낀 것을 작품으로 옮기죠. 제 작품이 세상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살다보면 태어날 때보다는 죽을 때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불제자로 사는 이유이고 또 창작을 해나가는 이유이기도 하죠." 010-3664-3136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최효임 작가의 '연꽃'. 법열의 기쁨을 담았다.

'환희수'에 매화 열리니 법열의 기쁨이

지원 최효임 작가 개인전

지원 최효임 작가가 3월 31일~4월 5일 나무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조계사 직장직능전법단 주최로 열리는 전시의 수익금을 (재)아름다운동행 탄자니아 농업고등학교 건립에 지원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환희수, 연꽃 등 36점의 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표작인 환희수는 즐겁고 기쁜 일이 많이 생기는 나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하늘색을 배경으로 흰색 매화를 그렸죠. 꽃잎이 훑날리는 느낌을 포착했는데 이는 법문을 듣고 일어나는 기쁨이 표현되어 있어요. 신심이 솟아나면 마음에서 기쁨이 우러나오고 행복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때의 느낌을 꽃이 피는 봄의 모습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스스로를 모태 불자라고 말하는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불교 집안에 자라 늘 불교와

친숙했다. 이후 20여년 조계사 신도로 신생활을 해온 그는 현재 조계사 직장직능전법단 자원위원으로 절에 와서 법문 듣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의 이런 환희로운 마음은 작품 '연꽃'에도 잘 담겨 있다.

"연꽃은 불교적인 사상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군자의 뜻을 품고 있는 꽃으로 문인화

3월 31일~4월 5일 나무 갤러리서 수익금 동행 탄자니아 학교 지원도

의 단골 소재로도 많이 사용하죠. 이번 전시가 불교와 인연이 깊은 만큼 먹으로 잎을 표현하고 붉은색으로 꽃을 표현해 법열의 기쁨, 용맹정진의 의지 등을 담아 봤어요." 최 씨는 어려운 가정환경을 딛고 어머니의 냉면가게를 도우며 독학으로 문인화를

공부해, 대한민국 문인화대전 대상을 비롯해 서울미술대전 금상,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회장상 우수상, 대한민국 전통미술대전 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현재는 조계사 직장직능전법단 법우들과 함께 다양한 봉사에 참여하는 등 이타행 실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아버지께서 문인화를 좋아하셨어요. 아버지 영전에서 부끄럽지 않은 문인화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죠. 이제는 다른 일은 접고 그림에만 전념하며 전업작가로 살고 싶죠. 불교를 알면 알수록 느끼는 것이 어떤 공부도 실천 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불자로서 불교를 공부하고 포이를 세상을 위해 잘 살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동행의 아프리카 학교 건립을 위해 수익금을 후원하는 이번 전시를 그래서 무엇보다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010-3704-8940 정혜숙 기자

청목의 산에서 내면의 세계를 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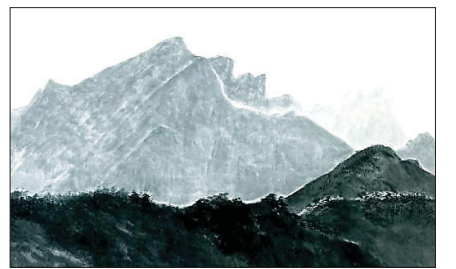
김영순의 개인전

3월 25일~31일 라메르서

김영순의 개인전 '청목에 묻다' 전시가 3월 25일~31일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서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산, 화계의 봄, 삼성산 설후 등 한국의 산천을 청목으로 표현한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특히, 작품 '산'에서는 청목을 통해 사물의 이미지를 단순화시켜 선적인 이미지를 표현해 낸다.

"불교에서 쪽색을 많이 사용해요. 쪽이라는 것은 쪽 같은 식물인데 여기서 승복 색깔의 이미지가 나오죠. 검으면서도 윤기가 있고 푸르른 오묘한 느낌이 있어요. 새벽 산의 느낌이 이 청목의 느낌과도 잘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 내면의 성찰이 청목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교육학과에서 공부하며 불화 등 다양한 장르의 그림을



청목으로 표현한 김영순의 '산'

섬렵한 작가는 마곡사, 칠불암, 백련사 등 전국 사찰을 돌며 그림 작업을 하기도 했다.

앞으로 작가는 먹 작업을 통해 한국 산천의 아름다움을 동양화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먹 작업은 제 내면의 느낌을 자연에 투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먹을 통해 자연과 내면의 거울을 투영시킬 수 있는 가장 동양화다운 동양화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02)730-5454

정혜숙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자연산 구지뽕

묘목 분양 (3년, 5년생)

무노동으로 (2,000평) 연봉 1억이상 가능!!

- 구지뽕 나무는 잎파리, 가지, 열매, 뿌리 등 전체를 건강식품,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고혈압, 당뇨, 근골강화, 면역력 증진에 특효)
- 최고 소득 작물로서 자연산은 한번 심어 놓으면 300년이상 사찰자립에 꼭 필요한 나무입니다. (500년 이상도 가능)
- 무농약, 무비료, 무퇴비로 키워야 더 좋으므로 사찰자립, 귀농귀촌, 은퇴 후 생활에 최적의 고소득 효도나무입니다.

▶3년생 7,000주 ▶5년생 5,000주 보유중

개복송아 묘목분양 (1년생)

- 강원도 350고지 이상의 토종 자연산 씨앗으로만 발아
- 무농약, 무비료 노동력 無
- 열매숙기, 발매기가 전혀 필요 無
- 꽃이 황홀해서 관상수로도 최고!
- 한번 심어 놓으면 150년이상 수확 (300년 가능)

※ 전국 최대 묘목 보유! (50주이상 주문 부탁)

구입문의 010-9608-2356(충주농원)
입금계좌 : 농협 123-02-311652 (이상국)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는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 안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침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점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찰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